2. 문항별 문항카드

문항카드 1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Ⅰ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상대적 최적화, 교통 체증, 삶에 대한 후회, 땅의 근원, 이장, 가족 불화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와 그 결정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가) 절대적 최적화는 수학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것이고, 상대적 최적화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개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값을 추구하는 것이다. 출근을 하는 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윗길은 고속도로로 넓은 대신에 길게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랫길은 지름길로 짧지만 대신 좁다. 고속도로는 넓기 때문에 차가 1대가 가든 4대가 가든 언제나 10분이 걸린다. 그런데 지름길은 좁아,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길이 막혀 1대가 가면 1분이 걸리고, 2대가 가면 2분이 걸리고, 3대가 가면 3분이 걸리고, x대가 가면 x분이 걸린다. 만약 이 동네에 직장에 가는 사람이 10명이고, 이들이 각자 차를 타고 출근한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수식을 써서 푼다면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최솟값이 나오는데, 그때 x=5가 된다. 즉 5명은 위로, 5명은 아래로 가야 한다. 그러면 위로 가는 사람은 고속도로이므로 10분씩 걸리고, 아래로 가는 사람은 5명이므로 5분씩 걸린다. 그래서 10분으로 가는 사람 5명하고, 5분으로 가는 사람 5명을 합치면 총 75분, 한 사람당 7.5분이 걸린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절대적 최적화의 답이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뭔가 불공평하기 때문인데, 고속도로로 가던 한 명이 지름길로 옮겨 가면 아래 지름길에는 차량 수가 5대에서 6대로 늘어나 6분이 걸리지만, 원래 고속도로에서는 10분이 걸렸던 사람이니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도로 교통을 총괄하는 기관에서는 5:5로 질서 있게 나누어 가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하겠지만, 개인에게는 이것이 좋은 답이 아니어서 지름길로 옮겨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사람이 옮겨 가면 지름길에는 총 7대가 되어 7분이 걸리지만, 고속도로로 갈 때보다 3분이 이익이므로 두 번째 사람도 지름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까지 모두 지름길을 택해, 10명이 모두 10분씩 총 100분이 소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 일천구백삼십사 년의 이 세상에도 기적이 있다. 그것은 P가 굶어 죽지 아니한 것이다. 그는 최근 일주일 동안 돈이 생긴 데가 없다. 잡힐 것도 없었고 어디서 벌이를 한 적도 없다. 그러나 그동안 굶어 죽지 아니하였다. P와 같은 인생을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이 싹 치운다면 근로하는 사람이 조금은 편해질는지도 모른다. P가 소부르주아지* 축에 끼이는 인텔리가 아니요, 노동자였더라면 그동안 거지가 되었거나 비상수단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용기도 없다. 그러면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다. 그렇지만 죽기보다도 더 귀찮은 일은 그를 잠시도 해방시켜 주지 아니한다. 그의 아들 창선이를 올려 보낸다고 어제 편지가 왔고 오늘은 내일 아침에 경성역에 당도한다는 전보까지 왔다. 올라오는 길에 전에 잡지사에 있을 때 안 OO인쇄소의 문선 과장을 찾아갔다. 월급도 일없고, 다만 일만 가르쳐 주면 그만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써 달라고 졸라 대었다.

A라는 그 문선 과장은 요리조리 칭탈*을 하던 끝에 - 그는 P가 누구 친한 사람의 집 어린애를 천거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

"보통학교나 마쳤나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그럼 왜 공부를 시키잖구?"

"인쇄소 일 배우는 것도 공부지."

"그건 그렇지만 학교에 보내야지."

"학교에 보낼 처지도 못 되고 또 보내 봤자 사람 구실도 못할 테니까·····."

"거참 모를 일이·····. 우리 같은 놈은 이 짓을 해 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되려 공부시킬 줄 아는 양반이 보통학교도 아니 마친 자제를 공장엘 보내요?"

"내가 학교 공부를 해 본 나머지 그게 못쓰겠으니까 자식은 딴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글쎄, 정 그러시다면 내가 내 자식 진배없이 잘 데리고 있으면서 일이나 착실히 가르쳐 드린다마는·····. 원, 너무 어린데 애처롭잖아요?"

"애처로운 거야 아비 된 내가 더하지요만 그것이 제게는 약이니까·····."

P는 당부와 치하를 하고 인쇄소를 나왔다. 한짐을 벗어 놓은 것같이 몸이 가뜬하고 마음이 느긋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창선이를 데리고 OO인쇄소에 가서 A에게 맡기고 내키지 않는 발길을 돌이켜 나오는 P는 혼자 중얼거렸다.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리었구나."

*소부르주아지: 부르주아(유산자)처럼 자산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프롤레타리아(무산자)도 아닌 중간 계층. 소상공인이나 소농인 및 지식인 등이 여기에 속함.

*칭탈: 무엇 때문이라고 핑계를 댐.

(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선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선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시어야 한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 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 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뵈일 수가 있었다.

“어떻게 갑재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채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 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헌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순수 이룩허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작만 허신 논들이야. 돈 있다구 어디 가 느르지논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논 둑에 선 느티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룬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헌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딨으며 나라가 어딨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허다. 그러나 이 늙은이헌테두 그만 신념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다구.”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룬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헌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 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라) 면장: 어쨌든 칠산리 골짜기의 그 무덤을 옮기셔야 합니다.

장남: 몇십 년째 있던 무덤을····· 어디로 옮기라는 거죠?

면장: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칠산리로 자동차 길을 냅니다. 산허리를 잘라 내고 골짜기를 메꿔야 길이 나는데, 그 무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남: 그런 곳에 갑자기 자동차 길을 내다니요?

면장: 칠산리 주민들이 군청에 몰려가 시위를 했거든요. 깜짝 놀란 군수님이 자동차 길을 내 주기로 한 겁니다. 버스도 다니고 화물차도 다니면 사람들 형편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장남: 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 무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면장: 안 됩니다. 오늘 안으로 옮기세요. 그 무덤 때문에 길 늦어진다고 칠산리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군청에서는 면장인 나더러 빨리 해결하라고 재촉하는데 연고자들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구·····. 그래서 생각 끝에 면사무소 문 앞에다 분묘 이장 공고를 써 붙였지요. 정말 놀랐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이 되니깐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장남: 우리로서는 중대한 문젭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옮긴다는 건. 자식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 본 다음에 결정짓겠어요.

면장: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글쎄요·····. 다 모여서 의논해 봐야만 결정짓겠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마치 그 결정에 따라 무덤을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뜻입니까?

장남: 물론이죠, 면장님.

면장: 이젠 면사무소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칠산리 어머니의 무덤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시죠! [중략]

면장: 당신들의 심정은 알겠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굶어 죽은 어머니, 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겠지요.

장남: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들의 심정을요.

면장: 어쨌든 그 어머니가 묻힌 무덤은 옮겨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촉한다.) 어서들 결정하세요! [중략]

(난감한 표정으로) 그럼 유감스럽지만·····. 칠산리 주민들이 당신들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칠 겁니다.

장녀: (더욱 강경한 어조) 그렇게 할테면 하라죠! 그 무덤 옮기는 걸 반대하는 건 여기 있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차녀: (회의적인 태도로 고개를 흔든다.) 난 여기에 온 걸 후회해. 솔직히, 우리 손으로 어머닐 옮겨 드리고, 그만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

삼남: 칠산리는 지긋지긋해. 그곳은 우릴 반겨 주지도 않잖아? 우리가 칠산리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두 나쁜 건 아니라구. 오히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잊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장녀: (꾸짖는다.) 너희들, 많이 변했구나!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의 자식들이 아냐!

삼남: (대항하듯이) 왜? 나도 어머니 자식이야. 칠산리를 인생의 전부인 양 붙잡고 있는 것만이 자식들이 할 일이라구 생각하지 마.

장녀: (분개해서 삼남의 뺨을 친다.) 누구야? 또 누구지? 우리들 중에서 칠산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 정말 그냥 안 둘 테야!

삼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낀다.) 싸우지 마·····. 무서워·····.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건 무섭다니깐·····.

장남: (삼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서워할 것 없어. 우린 모두 어머니의 자식들이야. 오늘 여기에 온 사람, 무슨 이유에서든지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 그 모두가 어머니에겐 똑같은 자식이라구. (자식들에게) 다들 마음을 진정하구 생각해 봐.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칠산리와 똑같구, 우리가 겪은 고통도 다를 게 없더라구·····. 우리가

	모두 어머니의 자식이듯이,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세상 어디든지 그곳이 칠산리야. (흐느끼는 삼녀를 데리고 무대 밖으로 퇴장하며) 우리는 칠산리로 가겠어. 어머니를 모셔 갈 사람들은 다 함께 칠산리로 가자구.
면장:	군청입니까? 여기는 월평면 면사무소입니다. 군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연고자들이 방금 칠산리를 향해서 떠났어요. 자기들 손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옮기겠답니다.

3. 출제 의도

-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음.
- 주어진 네 제시문을 '의사결정'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이 일에 관해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각 제시문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와 의사결정을 통해서 초래된 결과를 서술하고, 이를 결론에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59쪽)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일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59쪽)	문제 1, 제시문 (나)
	성취기준 2: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59쪽)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일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59쪽)	제시문 (다)
	성취기준 3: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59쪽)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일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59쪽)	제시문 (라)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2독서03-03]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제시문 (가)

1	한계를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97쪽)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을 추론하며 읽는다.(95쪽)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이상형 외	지학사	2018	160-164	제시문(가)	○
국어	민현식 외	천재교육	2017	398-402	제시문(나)	○
국어	이성영 외	좋은책 신사고	2017	108-117	제시문(다)	○
국어	민현식 외	천재교육	2017	68-81	제시문(라)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지학사, 2018)에 실린 정하응이 쓴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고속도로와 지름길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체를 고려하는 수학적 계산으로 절대적 최적화를 선택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대적 최적화의 원리로 전체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 지름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지름길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교통 체증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7)에 실린 채만식의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주인공 P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상경 소식과 현재 궁핍한 현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인텔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감 가지면서 아들을 인쇄소로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된다. P는 어린 아들을 인쇄소로 보낸 결정 후 아들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줄었으나, 어린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조적인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 신사고, 2017)에 실린 이태준의 소설 「돌다리」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주인공의 아들인 창섭이가 아버지에게 병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땅을 팔 것을 제안하지만 창섭 아버지는 땅을 가족의 삶과 천지만물의 근원이라는 신념으로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그 결과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생각이 다름을 알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예감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섭섭함과 안타까움의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7)에 실린 이강백의 「칠산리」라는 희곡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하였다. 이 제시문은 군청에서 자동차 길을 내려고 면장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어머니 무덤을 옮기도록 요청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장남을 비롯한 자식들은 어머니와 칠산리에

대한 애정으로 이장을 반대한다. 그러나 시간적 압박감과 가족들 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장남은 이장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족들은 칠산리에 있는 지금의 무덤이 아니라 어머니가 모신 곳을 고향으로 여기면 된다는 장남의 결정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 감점 점수 ±1~25자 / 1점 감점 ±26자 이상 /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u>의사결정을 내린 '이유'</u> 와 <u>의사결정으로 초래된 '결과' 를</u>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가)**이유**: 타인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상대적 최적화 원리(4점) **결과**: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여 교통 체증이 심화(4점) (나)**이유**: 갑작스러운 아동의 양육 통보, 지식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4점) **결과**: 양육부담을 완화한 안도감,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 인생에 대한 허탈감(4점) (다)**이유**: 땅과 고향을 가족과 삶의 터전이라는 신념(4점) **결과**: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 차이를 확인하고, 부자간 심리적 결별 예감으로 인한 공허감, 안타까움 4점) (라)**이유**: 군청의 이장 요구로 촉발된 가족 갈등의 해소를 위함(4점) **결과**: 가족들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어머니가 계신 곳을 고향으로 여기는 인식 변화로 장남의 결정을 수용(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 와 의사결정으로 초래된 '결과' 를 찾아 <u>하나의 완성된 글</u>(서론 / 본론 / 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지 평가.(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5점) [예시] **서론**: 각 제시문에는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와 그 결정이 초래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론**: 결론적으로 상대적 최적화, 회한, 신념, 가족 갈등의 해결을 이유로 내린 의사결정은 교통 체증, 허탈감, 공허감, 장남의 인식변화 수용	40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동기와 방식을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7. 예시 답안

각 제시문에는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와 그 결정이 초래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의 사람들은 타인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대적 최적화 원리에 따라 지름길을 결정한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여 교통 체증이 심해진다. (나)의 P는 갑작스러운 아들 양육 통보와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아들을 인쇄소로 보내는 결정 후 양육 부담의 완화로 안도하지만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 인생에 대한 허탈감을 동시에 느낀다. (다)의 아버지는 땅과 고향을 가족과 삶의 터전이라는 신념으로 땅을 팔지 않기로 한다. 그 결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 차이를 확인하고, 부자간 심리적 결별을 예감하면서 공허감, 안타까움을 느낀다. (라)에서 장남은 군청의 요구로 촉발된 가족 갈등의 해소를 위해 이장을 결정하고 그 결과 가족들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어머니가 계신 곳을 고향으로 여겨 이장을 결정한 장남의 제안을 수용한다. 결론적으로 상대적 최적화, 회한, 신념, 가족 갈등의 해결을 이유로 내린 의사결정은 교통 체증, 허탈감, 공허감, 장남의 인식 변화를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66자)

문항카드 2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Ⅰ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관료제, 공직자 직업윤리, 공동체주의, 개인과 공동체 조화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면장'의 행동을 제시문 (마)를 토대로 서술하고, '면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갖춰야 할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라) 면장: 어쨌든 칠산리 골짜기의 그 무덤을 옮기셔야 합니다.
장남: 몇십 년째 있던 무덤을·····어디로 옮기라는 거죠?
면장: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칠산리로 자동차 길을 냅니다. 산허리를 잘라 내고 골짜기를 메꿔야 길이 나는데, 그 무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남: 그런 곳에 갑자기 자동차 길을 내다니요?
면장: 칠산리 주민들이 군청에 몰려가 시위를 했거든요. 깜짝 놀란 군수님이 자동차 길을 내 주기로 한 겁니다. 버스도 다니고 화물차도 다니면 사람들 형편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장남: 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 무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면장: 안 됩니다. 오늘 안으로 옮기세요. 그 무덤 때문에 길 늦어진다고 칠산리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군청에서는 면장인 나더러 빨리 해결하라고 재촉하는데 연고자들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구·····. 그래서 생각 끝에 면사무소 문 앞에다 분묘 이장 공고를 써 붙였지요. 정말 놀랐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이 되니깐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장남: 우리로서는 중대한 문젭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옮긴다는 건. 자식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 본 다음에 결정짓겠어요.
면장: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글쎄요·····. 다 모여서 의논해 봐야만 결정짓겠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마치 그 결정에 따라 무덤을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뜻입니까?
장남: 물론이죠, 면장님.
면장: 이젠 면사무소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칠산리 어머니의 무덤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시
죠! [중략]
면장: 당신들의 심정은 알겠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굶어 죽은 어머니, 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겠지요.

장남: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들의 심정을요.

면장: 어쨌든 그 어머니가 묻힌 무덤은 옮겨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촉한다.) 어서들 결정하세요! [중략]

(난감한 표정으로) 그럼 유감스럽지만·····. 칠산리 주민들이 당신들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칠겁니다.

장녀: (더욱 강경한 어조) 그렇게 할테면 하라죠! 그 무덤 옮기는 걸 반대하는 건 여기 있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차녀: (회의적인 태도로 고개를 흔든다.) 난 여기에 온 걸 후회해. 솔직히, 우리 손으로 어머닐 옮겨 드리고, 그만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

삼남: 칠산리는 지긋지긋해. 그곳은 우릴 반겨 주지도 않잖아? 우리가 칠산리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두 나쁜 건 아니라구. 오히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잊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장녀: (꾸짖는다.) 너희들, 많이 변했구나!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의 자식들이 아냐!

삼남: (대항하듯이) 왜? 나도 어머니 자식이야. 칠산리를 인생의 전부인 양 붙잡고 있는 것만이 자식들이 할 일이라구 생각하지 마.

장녀: (분개해서 삼남의 뺨을 친다.) 누구야? 또 누구지? 우리들 중에서 칠산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 정말 그냥 안 둘 테야!

삼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낀다.) 싸우지 마·····. 무서워·····.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건 무섭다니깐·····.

장남: (삼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서워할 것 없어. 우린 모두 어머니의 자식들이야. 오늘 여기에 온 사람, 무슨 이유에서든지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 그 모두가 어머니에겐 똑같은 자식이라구. (자식들에게) 다들 마음을 진정하구 생각해 봐.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칠산리와 똑같구, 우리가 겪은 고통도 다를 게 없더라구·····. 우리가 모두 어머니의 자식이듯이,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세상 어디든지 그곳이 칠산리야. (흐느끼는 삼녀를 데리고 무대 밖으로 퇴장하며) 우리는 칠산리로 가겠어. 어머니를 모셔 갈 사람들은 다 함께 칠산리로 가자구.

면장: 군청입니까? 여기는 월평면 면사무소입니다. 군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연고자들이 방금 칠산리를 향해서 떠났어요. 자기들 손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옮기겠답니다.

(마) 관료제 조직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식적인 규칙과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대규모 위계 조직이다.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업무가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다. 세분화된 업무를 분업의 원리를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다. 조직 내에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소수 상급자가 다수 하급자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다. 셋째, 규칙과 절차에 의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 과업을 수행하는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바) 직업윤리는 직업 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과 규범을 뜻한다. 특수 직업윤리는 특정 직업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요구하는 행동 규범이다.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직업에 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공성이 요구되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등의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필요하다. 공직자가 가진 특권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들의 부정부패는 불신 풍조를 조장하

고,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여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인 개인은 정의로운 사회와 좋은 삶을 위해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공동체주의가 그 사회만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관습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까지 수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중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중시해서는 안 되며, 양자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둘의 조화를 지향해야 한다. 즉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특정한 사회 조직의 관점에서 어떤 대상의 행동을 설명하는 입체적 분석력과 2) 공직자들이 지녀야 할 자세나 태도를 현대 사회에 적용해 논리적이고 통합적으로 유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 문제에 답을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조직이 가지는 특징을 적용하여, 면장에게서 나타나는 공직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어진 두 제시문을 읽고 직업윤리의 논지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대 사회에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자세를 찾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 - 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8 - 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5 - 74호 [별책 5]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59쪽)	제시문 (라)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12사문02-03]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비교한다.(248쪽)	제시문 (마)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2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133쪽)	제시문 (사)

3.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3-01] 직업의 의의를 행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직업윤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한 청렴한 삶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고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41쪽)	제시문 (바)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이성영 외	천재교육	2018 (2020)	66-81	제시문 (라)	○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18 (2020)	74	제시문 (마)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7 (2019)	74	제시문 (마)	○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	2017 (2020)	84-87	제시문 (바)	○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17 (2019)	86	제시문 (바)	○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2020)	173	제시문 (사)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	2017 (2020)	178-179	제시문 (사)	○

5. 문항 해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7)에 실린 이강백의 「칠산리」라는 희곡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하였다. 이 제시문은 군청에서 자동차 길을 내려고 면장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어머니 무덤을 옮기도록 요청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장남을 비롯한 자식들은 어머니와 칠산리에

대한 애정으로 이장을 반대한다. 그러나 시간적 압박감과 가족들 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장남은 이장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족들은 칠산리에 있는 지금의 무덤이 아니라 어머니가 모신 곳을 고향으로 여기면 된다는 장남의 결정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사회・문화』(교학사, 2018) 교과서에 실린 「사회 조직의 의미와 유형」의 일부와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2017) 교과서에 실린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한 글이다. 이 단원들의 목표는 다양한 사회 집단 혹은 조직들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이 제시문에서 관료제는 업무의 전문화와 분업화, 서열화된 위계, 규칙과 절차가 있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금성, 2017) 교과서에 실린 「직업윤리와 청렴」의 일부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 2017) 교과서에 실린 「직업윤리와 청렴」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한 글이다. 이 단원들의 목표는 다양한 직업들에서 나타나는 직업윤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제시문에서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져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는 직업윤리를 지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미래엔, 2017) 교과서에 실린 「다양한 정의관으로 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의 일부와 고등학교 『통합사회』(비상, 2017) 교과서에 실린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한 글이다. 이 단원들의 목표는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하는 데 있다. 이 제시문에서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사익보다는 연대의식을 갖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선과 공동선을 함께 추구될 수 있도록 조화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 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에 나타난 관료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제시문 (라)에 나타난 면장의 행동을 관료제 특징에 맞게 올바로 서술했는지 평가한다(15점)
① 관료제 조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한 경우.(3점)
② 면장의 관료주의적 행동 특성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3점)
③ 통합: 관료제 특성을 근거로 면장의 관료주의적 행동을 통합하여 서술한 경우.(9점)

2) (라)의 면장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아갈 방향을 통합적으로 서술했는지 평가한다(25점)
① 직업윤리와 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을 정확하게 제시했을 경우.(6점)
② 개인선과 공동선와 조화를 정확히 제시했을 경우.(7점)
</td><td>40</td></tr>
</table>

③ 통합: 논지들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면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라는 점을 서술했을 경우12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를 근거로 (라)의 면장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을 정확하게 서술했는지 평가(15점): 3~15점	제시문 (마)의 관점을 서술한 경우	3~5점
		제시문 (라)와 면장의 관료주의적 행동 특성을 서술한 경우	3~5점
		(마)의 관점을 근거로 (라)의 면장의 관료주의적 행동을 통합하여 서술한 경우	10~15점
	② (바)와 (사)를 근거로 면장이 직무 수행에 갖춰야 할 자세를 평가 (25점): 5~25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파악한 경우	7~10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14~20점
		두 제시문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라)의 면장이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했을 경우	20~25점

7. 예시 답안

(마)에서 관료제 조직의 특징인 분업화, 서열화된 위계, 규칙과 절차가 면장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자동차 도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업무 중, 면장은 군청이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분업화에 해당한다. 면장이 군청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르고, 결과를 보고하는 행위에서 서열화 된 위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차에 따라 이장 공지를 하고,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묘지의 강제 이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업무 처리과정에서 면장이 자신의 판단과 재량보다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장은 공직자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 정신, 일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함,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가운데 개인과 지역사회 전체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면장은 이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그 지역 사회가 누릴 수 있

는 혜택을 충분히 성찰함과 동시에, 가족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가능한 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68자)

문항카드 3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I / 문제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핵심개념 및 용어	땅의 의미, 갈등, 협상, 전략, 화해
예상 소요 시간	24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3] 제시문 (다)의 창섭 아버지와 제시문 (아)의 강 노인이 땅에 부여한 의미의 차이를 서술하고, 자식들이 강 노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제시문 (자)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20점, 400-420자]

[제시문]

(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선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선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시어야 한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 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 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뵈일 수가 있었다.

"어떻게 갑재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채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 헌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순수 이룩허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작만 허신 논들이야. 돈 있다구 어디 가 느르지논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논 둑에 선 느티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룬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헌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딨으며 나라가 어딨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허다. 그러나 이 늙은이헌테두 그만 신념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다구."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룬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헌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 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아) "영감님네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그런데 뭘 그리 열심히 가꾸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아니, 누가 그런 소릴 해?"

시뻘건 얼굴을 홱 돌리며 벽력같이 고함을 지르는 통에 김 씨가 움찔 뒤로 물러났다.

"어젯밤 반상회에서 댁의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저도 우리 집 여편네한테 들은 소리라서."

더 들어 볼 것도 없이 강 노인은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벗겨진 신발을 짝짝이로 꿰어 차고서. 얼갈이배추와 열무들을 다듬고 있던 마누라가 노인의 허둥대는 기세에 토끼 눈을 뜨고 일어섰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올해일랑은 더 이상 일을 못 하시니까 파실 모양이더라고 말했다는군요. 경국이 어미도 동네 사람들 닦달에 그냥 해 본 소리겠지요."

"그냥?"

"밭에다 그 지경을 해 댄 걸 보면 오죽했겠수.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는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사 편치 뭘 그러슈."

밭이 그 지경이라는데도 마누라는 천하태평이다. 강 노인은 어이가 없어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다. 마누라는 이때다 싶은지 또 한차례 오금을 박는다. 어제 다녀간 복덕방 박 씨의 의미심장한 충고가 생각나서였다.

"팔육인가 팔팔인가 땜에 도로 주변 미화 사업이 한창이라는데 밭농사를 그냥 두고 보겠수? 팔팔 전에는 어차피 이곳에다가 뭐 은행도 짓고 병원도 짓게끔 계획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시에다 팔면 금이나 제대로 쳐줍디까? 그 전에 제 가격 받고·····."

"시끄러!"

"땅은 안 돼. 안 팔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의 불이라도 꺼 봅시다. 다 자식 잘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우?"

"자식 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 보낸 걸 몰라!"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담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 볼 엄두도 못 내는 큰돈이 굴러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씀씀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자) 피파 집행 위원회가 2002년 월드컵 개최국 결정 시기를 앞당기자 한국은 이에 맹렬히 반대하며 협상 시기를 지연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유치 홍보 기간의 종반에 한국은 기존의 단독 개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한일 공동 개최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국이 일본에 비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공동 개최가 양국 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외교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 있고, 세계적으로 두 나라의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월드컵은 한 나라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피파 규정을 들어 공동 개최를 반대했다. 한일 간의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자 아시아 축구 연맹(AFC) 측에서 '한일 공동 개최'를 제안했고, 유럽 축구 연맹(UEFA) 회장이 이를 지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한국과 일본 모두 구한다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한일 공동 개최'는 유럽 세력의 호응을 받기에 충분했다.

3. 출제 의도

- 문제 3의 출제 의도는 문학 텍스트 속에 묘사된 어떤 상황이나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특정한 주제에 맞는 근거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을 일관되고 완결된 논리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음.
-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협상태도와 전략의 의미를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다), 문제 3

	성취 기준 2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아)
	성취 기준 3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자)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민현식	좋은책신사고	2020	108-117	제시문 (다)	○
국어	박영민	비상	2020	270-283	제시문 (아)	○
국어	정민	해냄에듀	2019	354-357	제시문 (자)	○

5. 문항 해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 신사고, 2017)에 실린 이태준의 소설 「돌다리」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주인공의 아들인 창섭이가 아버지에게 병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땅을 팔 것을 제안하지만 창섭 아버지는 땅을 가족의 삶과 천지만물의 근원이라는 신념으로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그 결과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생각이 다름을 알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예감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섭섭함과 안타까움의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된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국어』(비상, 2020)에 실린 양귀자의 소설 「마지막 땅」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및 이웃과의 갈등 양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가치관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해당 인물들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가치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국어』(해냄에듀, 2019)에 실린 김기홍의 「갈등을 해결하는 협상」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2002년 개최된 피파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동개최토록 결정하게 된 협성과정의 소개를 통해 협상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협상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20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다)의 창섭 아버지와 제시문 (아)의 강 노인이 땅에 부여한 의미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10점)

① 창섭 아버지가 땅에 부여한 의미를 파악한 경우.(5점)
[예시]

(다)의 창섭 아버지는 땅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실로 이해타산에 의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천지만물의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강 노인이 땅에 부여한 의미를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아)의 강 노인은 땅을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땅을 팔아버렸던 허망한 경험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데 위안을 느낀다.

2) 제시문 (자)의 월드컵 개최국 선정 과정을 활용해 자식들이 강 노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명확히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10점)

① 자식들은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땅을 처분하자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강 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자식들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어머니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강 노인의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모두 언급한 경우.(10점)
② 자식들은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땅을 처분하자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u>점만을 언급</u>한 경우.(5점)
③ 강 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자식들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어머니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강 노인의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u>점만을 언급</u>한 경우.(5점)

[예시]

(자)의 월드컵 개최국 선정 과정을 활용해 (아)의 갈등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자식들은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땅을 처분하자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 강 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자식들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어머니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강 노인의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u>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u>
* <u>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u>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 술 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 용 적 측면 (20점)	① (다)의 창섭 아버지와 (아)의 강 노인이 땅에 부여한 의미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 (10점)	(다)의 창섭 아버지가 땅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히 설명	2-5점
		(아)의 강 노인이 땅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히 설명	2-5점
	② (자)의 월드컵 개최국 선정 과정을 활용해 자식들이 강 노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명확히 서술하였는지를 평가 (10점)	(자)를 활용해 (아)의 자식들이 강 노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중 하나만을 설명	3-5점
		(자)를 활용해 (아)의 자식들이 강 노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설명	8-10점

7. 예시 답안

(다)의 창섭 아버지는 땅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조상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며, 이해타산에 의해 처분할 수 없는 천지만물의 근거로 생각한다. 반면, (아)의 강 노인은 땅을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땅을 팔아버렸던 허망한 경험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데 위안을 느낀다. (자)의 월드컵 개최국 선정 과정을 활용해 (아)의 갈등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자식들은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땅을 처분하자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 강 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자식들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어머니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강 노인의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418자]

문항카드 4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Ⅱ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독서, 국어
	핵심개념 및 용어	정, 감정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정을 주는 이유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가) "그 애가 옆에 있다면 정말 좋으련만."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년은 지금 자네 곁에 없잖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자네 혼자뿐이니 어둡건 말건 아무튼 마지막 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끊어 버리고 예비 줄 두 개를 연결해 두는 게 좋겠어. 그래서 노인은 그렇게 했다. 어둠 속이라 일하기 어려웠고, 한번은 고기 놈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앞으로 고꾸라져 얼굴 아래가 찢어졌다. 그는 간신히 이물* 쪽으로 돌아가 판자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그리고 어깨의 힘으로 줄을 고정하면서 고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주의 깊게 가늠해 보고 나서 한 손을 물에 담가 나아가는 조각배의 속도를 헤아려 보았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낚싯줄이 물속으로 풀려 내려갔다. 조각배는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었고, 아침 해가 수평선 위에 첫 모습을 드러내자 노인의 오른쪽 어깨에 햇살이 비쳤다. 그때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북쪽에서 조각배를 향해 날아왔다. 휘파람새는 수면 가까이 아주 나지막하게 날고 있었다. 노인은 새가 몹시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는 배의 고물*에 가서 지친 날개를 쉬었다. 그러고 노인의 머리 위를 맴돌다가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낚싯줄 위에 가서 앉았다. "너 몇 살이냐? 이번 여행이 첫 나들이인 거야?" 노인이 새에게 물었다. 노인이 말을 걸자 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새는 너무 기진맥진한 상태여서 제대로 낚싯줄을 살펴볼 겨를도 없어 보였다. 가냘픈 발가락으로 낚싯줄을 꽉 움켜잡고 있는 동안 아래위로 흔들거렸다.

"줄은 튼튼해. 아주 단단하다고. 간밤에는 바람 한 점 없었는데 그렇게 지쳐서야 되겠니." 노인이 새에게 말했다. "새들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저 새들을 노리고 바다까지 날아오는 매들이 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실컷 푹 쉬어라, 작은 새야." 그가 말했다. 밤 동안에 등이 뻣뻣했고 지금은 심한 통증까지 있었는데, 새에게 말을 걸고 나니 노인은 힘이 솟았다.

바로 그때 고기가 갑자기 요동치는 바람에 노인은 이물 쪽으로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다. 갑자기 낚싯줄이 당겨지는 바람에 새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만, 노인은 새가 날아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새와 벗 삼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노인은 그제야 사방을 둘러

보면서 새를 찾았다. 그러나 새는 온데간데없었다. 오래 쉬지도 못하고 그만 가 버렸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물: 배의 앞부분.
*고물: 배의 뒷부분.

(나)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종요로운*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통재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슬프다.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 낙점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 보내고, 비복들도 쌈쌈이 낱낱이 나눠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슬프다. 연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영구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오.

나의 신세 박명하여 슬하에 한 자녀 없고, 인명이 흉완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시름을 잊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영결하니, 오호통재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요, 굳세고 곧기는 만고의 충절을 듣는 듯한지라.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요. 오호통재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을 때도 있고, 비복이 순하나 명을 거스를 때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에 수응*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밥 먹을 적 만져 보고 잠잘 적 만져 보아, 널로 더불어 벗이 되어, 여름 낮에 주렴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글릴 때에, 겹실을 꿰었으니 봉미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 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솔솔이 붙여 내매 조화가 무궁하다.

이 생애 백 년 동거하렸더니, 오호애재라, 바늘이여.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 깃을 달다가, 무심 중간에 자끈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워라. 아야 아야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유세차: 제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
*종요롭다: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긴요하다.
*동지상사: 조선 시대에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내던 사신의 우두머리.
*수응: 요구에 응함.

(다) 이 몸이 생겨날 때 임을 따라 생겼으니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젊어 있고 임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 전혀 없다.
평생에 원하기를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는가.
엊그제 임을 모셔 광한전*에 올랐는데
그사이에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올 적에 빗은 머리 흐트러진 지 삼 년일세.
황혼에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원앙금 베어 놓고 오색실을 풀어 내어
금자로 재어서 임의 옷을 지어 내니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갖추었구나.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을 뉘라서 찾아갈까.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동산에 달 오르고 북극에 별이 뵈니
임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잠시라도 생각 말아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이 열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광한전: 달의 선녀인 항아가 산다는 누각.
*편작: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명의.

(라) 가족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한 인희는 남편 정철이 퇴직하면 교외에서 살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끔 느끼는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자궁암 말기임을 알게 된다. 수술 후 인희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인희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다.

S# 73.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인희, 정철, 조금은 낯설고 멋쩍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정철: (멀뚱하게 앞만 보며)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갖다 놓을걸. 심심하네.
인희: 여보, 나 소원 있어.
정철: 뭐?
인희: 나 무덤 만들어 줘.
정철: 언제는 답답해서 싫다고 화장해 달라며?
인희: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강에 뿌렸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다 뿌렸는지, 저기다 뿌렸는지 도통 기억에 없고.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꼭 미친 사람처럼. 당신하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정철: ·····.
인희: 당신은····· 나 없이도 괜찮지?
정철: (인희를 본다.)
인희: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정철: (고개를 돌리며) 싫어.
인희: 나····· 보고 싶을 것 같아?
정철: (고개를 끄덕인다.)
인희: 언제? 어느 때?
정철: 다.
인희: 다 언제?
정철: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인희: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다.) 또?
정철: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없는 된장국 먹을 때.
인희: 또?
정철: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가 망령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인희: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괜한 옷섶만 만지고 두리번거리며)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물이 주룩 흐른다.)
정철: (인희를 안고, 눈물 흘린다.)
인희: (울며 웃으며)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 줘라.
정철: (인희 얼굴을 손으로 안고, 입을 맞춰 준다.) 고마웠다.

3. 출제 의도

-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지문 이해력과 독해력과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정'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정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정이 갖는 의미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각 제시문에서 사람들이 사물, 자연, 사람 등에 정을 주는 '이유'와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도출하여, 이를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고자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우리의 삶에서 문학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해당하며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문학이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는 것은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125쪽)
	성취기준 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감상 결과를 타인과 공유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타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한다. (126-127쪽)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적·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면서 읽거나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도록 한다. 여러 가지 관점이나 형식의 글은 주제에 대한 독자의 판단 근거이자 자료가 된다. 이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단순히 여러 글을 비교·대조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94쪽)	제시문 (나)
성취기준 2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97쪽)	제시문 (나)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작품 자체를 하나의 언어 예술로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작품의 내용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 의식으로 구현되며 이러한 주제 의식은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문학 고유의 언어 형식으로 표현된다. 작품의 형식적 요소가 작품의 내용을 드러내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거나 작품의 내용이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어떻게 어울리는지 감상하게 함으로써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125-126쪽)	제시문 (다)
성취기준 2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128쪽)	제시문 (다)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여러 자료에 대한 비판적 독서를 통해 독자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필자의 관점이나 생각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관과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발견하기도 한다. 글을 읽으면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비판적·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읽기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59-60쪽)	제시문 (라)
성취기준 2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향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작품을 수용할 때 단순히 타인의 평가를 따르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 보거나 다양한 사례와 비교하면서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 보도록 한다. (66쪽.)	제시문 (라)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김동환 외	천재	2018	67-71	제시문 (가)	○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86-188	제시문(나)	○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18	194-197	제시문(다)	○
국어	최원식 외	창비	2017	90-97	제시문(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과서, 2018)에 실린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인용한 소설의 장면은, 고기잡이에 삶의 가치를 둔 한 노인이 홀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낚싯줄에 걸린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하는 과정에서 배로 날아와 앉은 작은 새와 대화를 나누며 새로부터 작은 위안을 얻고, 현재 자신이 처한 고단하고 외로운 상황을 투영하는 동정과 더불어 새를 끝까지 보살펴 주는 못한 아쉬움과 미안함을 느끼는 대목이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지학사, 2018)에 실린 「조침문」에서 인용한 글로서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조선 후기 여류 문인의 작품으로, 평생의 벗으로 귀중히 아끼던 바늘이 부러져서 느낀 상실감, 안타까움, 슬픈 애도의 정이 제문 형식을 통해 탁월한 비유와 섬세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18)에 실린 정철의 「사민인곡」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절대적인 임(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한 조선시대 가사로서, 특히 제시문으로 인용한 부분에서는 임을 향한 그리움, 임을 사모하는 연정, 다시 임의 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등이 수려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창비, 2017)에 실린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대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 인용한 글이다. 예고 없이 찾아온 죽음, 즉 영한 이별을 앞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이 마지막 장면은, 일상의 경험과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해온 부부의 이별의 슬픔, 안타까움,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 진정한 사랑 등이 미묘하게 뒤섞인 감정을 잘 보여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1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40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대상에 정을 주는 '이유'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가) **이유**: 바다 한가운데서의 고단함(피로함)과 외로움 속에서 우연히 자신이 현재 처한 힘겨운 상황과 닮은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4점)
감정: 작은 위안, 새에게 자신의 상황을 투영한 동정, 새를 돌보지 못한 아쉬움과 미안함(4점)
(나) **이유**: 오랜 세월 벗이 되어 가족 없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가계에 도움을 주며, 사람과 달리 곁을 떠나지 않고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4점)
감정: 애정을 가졌던 바늘이 부러진 후 상실감, 슬픔, 애도의 감정.(4점)
(다) **이유**: 과거 사랑했던 임(임금)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인 임을 잊지 못해 다시 임에게로 되돌아가고 싶기 때문에.(4점)
감정: 이때 표출되는 감정은 대상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서의 연정.(4점)
(라) **이유**: 일상의 경험과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해 온 가족 구성원의 예고 없는 죽음에 직면하였기 때문에.(4점)
감정: 이때 부부는 이별의 슬픔, 안타까움, 고마움, 사랑 등이 미묘하게 뒤섞인 감정.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찾은 '이유'와 '감정'을 자신의 언어로 잘 압축하여 글을 맺고 있는지, 즉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지 평가.(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5점)

> **서론**: 제시문 (가)~(라)는 특정 상황에서 정을 주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보여준다.
> **결론**: 결론적으로 사람은 외로움, 상실감, 사모, 이별 등과 같은 이유로 사물 혹은 사람과 정을 나누고, 이때 느끼는 감정은 동정, 애정, 추모, 연정, 슬픔, 사랑 등이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반복의 특징과 결과를 각각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7. 예시 답안

(가)~(라)는 특정 상황에서 정을 주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보여준다. (가)의 노인은 고단함과 외로움 속에서 우연히 만난 새가 자신처럼 힘겨운 상황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정을 준다. 여기서 작은 위안을 얻었던 노인은 떠나간 새에게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 동정과 함께 미안함을 느낀다. (나)의 부인은 바늘이 오랜 세월 벗이 되어 외로움을 달래주고 가계에 도움을 주며 사람과 달리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을 준다. 그런데 애정을 가졌던 바늘이 부러진 후 상실감으로 인해 슬픈 애도의 감정을 느낀다. (다)의 화자는 사랑하였던 임에게 버림받았음에도 절대적인 임을 잊지 못해 일방적인 정을 쏟는다. 이때 표출되는 감정은 대상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인 연정이다. (라)의 부부는 일상과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해 온 배우자의 죽음을 앞두고 정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서 정을 표현한다. 이때 부부는 슬픔, 안타까움, 고마움, 사랑 등이 뒤섞인 감정을 느낀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외로움, 상실감, 사모, 이별 등의 이유로 정을 주고, 이때 동정, 애정, 추모, 연정, 슬픔, 사랑 등의 감정을 느낀다. (570자)

문항카드 5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II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정의(情誼), 다정한 사회, 의사소통적 이성, 사회적 감정, 공감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무정한 사회'가 '다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고, 제시문 (마)의 '다정한 사회'가 이루어진 후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라) 가족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한 인희는 남편 정철이 퇴직하면 교외에서 살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끔 느끼는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자궁암 말기임을 알게 된다. 수술 후 인희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인희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다.

S# 73.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인희, 정철, 조금은 낯설고 멋쩍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정철: (멀뚱하게 앞만 보며)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갖다 놓을걸. 심심하네.
인희: 여보, 나 소원 있어.
정철: 뭐?
인희: 나 무덤 만들어 줘.
정철: 언제는 답답해서 싫다고 화장해 달라며?
인희: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강에 뿌렸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다 뿌렸는지, 저기다 뿌렸는지 도통 기억에 없고.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꼭 미친 사람처럼. 당신하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정철: ·····.
인희: 당신은····· 나 없이도 괜찮지?
정철: (인희를 본다.)
인희: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정철: (고개를 돌리며) 싫어.
인희: 나····· 보고 싶을 것 같아?
정철: (고개를 끄덕인다.)
인희: 언제? 어느 때?
정철: 다.

인희: 다 언제?
정철: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인희: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다.) 또?
정철: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없는 된장국 먹을 때.
인희: 또?
정철: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가 망령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인희: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괜한 옷섶만 만지고 두리번거리며)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물이 주룩 흐른다.)
정철: (인희를 안고, 눈물 흘린다.)
인희: (울며 웃으며)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 줘라.
정철: (인희 얼굴을 손으로 안고, 입을 맞춰 준다.) 고마웠다.

(마)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 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 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입니다.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냉정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 간에 정의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입니다.

정의는 본래 천부*한 것이언만, 유교를 숭상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또 혼상, 제사도 허례로 기울어지고 진정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정이 생김은 당연하거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 정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희물*로 여깁니다. 또한, 집 안에 계신 조부모나 부모는 호령과 매 때리기로만 일을 삼으므로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에 떨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강보에서부터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하던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에 가면 훈장이라는 이가 또한 호랑이 노릇을 합니다. 또 시부모와 며느리, 형과 아우, 모든 식구가 다 서로 원수입니다. 관민 간에도 그러합니다. 리에, 면에, 군에, 도에가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찬바람이 아니 부는 데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남녀 간의 무정함입니다. 우리네의 가정에서 부부가 만일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딴이 납니다.

이제 한 번 눈을 돌려 다정한 남의 사회를 봅시다. 그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결코 노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도 아이를 특별히 대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처럼 역정을 내며 먹으라고 호령하지 않습니다. 선생이 학생을 친절히 대접하므로 학생들은 선생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합니다. 학교뿐 아니라 선차*에도, 집회에도 화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먼저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조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더운 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러한 뒤에야 참삶의 맛을 알겠습니다.

*정의: 서로 가깝게 지내어 친하여진 정.
*화기: 화목한 기운.
*천부: 하늘이 줌. 또는 태어날 때부터 지님.
*완희물: 장난하며 희롱하는 대상.

*선차: 배와 수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의미함.

(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에서는 갈등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항상 존재한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구성원 간에 합리성을 공유해야 한다.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버마스는 이러한 합리성을 의사소통적 이성이라고 하였다.

의사소통적 이성을 발휘하여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를 향상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대화와 토론에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사소통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면 참여자들은 스스로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합의한 사항을 지키게 된다. 이와 같은 화해와 자율 정신은 현실 사회를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은 대화와 토론, 즉 의사소통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므로 사회 구성원의 의사소통 행위는 윤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왜곡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윤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대화에 참여한다고 말하지만, 권력과 돈의 위력 등 외부의 압력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이나 반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몰아가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윤리적인 기준을 무시하는 왜곡된 담화는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갈등의 심화와 분쟁을 초래한다.

(사) 과거 서양의 사상가들은 전통적으로 도덕의 문제를 정념과 이성 간의 싸움으로 설정하였고, 이 싸움에서 이성이 승리하는 것이 곧 선이요 덕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성에 의한 정념의 지배'는 오랫동안 서양 윤리학의 공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흄에 따르면 이성은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성의 능력인 지성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이성은 바람직한 행위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감정만이 의지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게 만든다. 따라서 도덕적 활동은 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시인(是認)의 감정이나 부인(否認)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은 개인들 각자의 주관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인 감정들이다. 흄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은 인류 전체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을 갖도록 만든다. 흄은 이를 다음처럼 설명한다. "그(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자)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떠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 그는 인간 본성 안의 보편적 원리를 움직여, 모든 인간이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소리를 내야 한다."

3. 출제 의도

-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사회발전에 있어 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회발전의 토대로 작용하는 정이 개인적 수준의 정의에서 사회적 수준에서의 정의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족 사이에서 돈독하게 쌓여가는 정을 기본으로 다정한 사회가 만

들어지는 것이 사회개조의 첫 번째 단초이며, 이러한 개인 간의 정의가 사회적 수준으로 발전하여 사회가 개조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람 간 의사소통이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

- 의사소통적 이성이 있어야만 왜곡된 의사소통이 없어질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이를 토대로, 다정한 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접근에 더하여 인간의 특성인 감정의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즉 도덕적 실천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감정으로서 공감이 전제된 의사소통적 이성이 윤리적 기준으로 확립되어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본 문제의 출제의도임

-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수의 지문을 통합적, 논리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통합적 사고력이 필요하며 대안제시 능력이 있어야 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호] “도덕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여러 자료에 대한 비판적 독서를 통해 독자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필자의 관점이나 생각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관과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발견하기도 한다. 글을 읽으면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비판적·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읽기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59-60쪽)</td><td>제시문 (라), 문제 2</td></tr>
<tr><td>성취기준 2</td><td>[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향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작품을 수용할 때 단순히 타인의 평가를 따르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 보거나 다양한 사례와 비교하면서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 보도록 한다. (66쪽.)</td><td>문제2</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독서</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95쪽.)</td><td>제시문 (마)</td></tr>
<tr><td>성취기준 2</td><td>[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이 성취기준은 여러 글에 제시된 다양한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td><td>문제 2</td></tr>
</table></td></tr>
</table>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삶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글에서는 필자나 독자 개인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다루어지며, 이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나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글에 나타난 주제, 관점 등에 대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구성하도록 안내한다.(95-6쪽.)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1-03]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일상의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39쪽)	제시문 (바)
성취기준 2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45쪽)	문제 2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58쪽)	제시문 (사)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최원식 외	창비	2017	90-97	제시문(라)	○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8	96-100	제시문(마)	○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17	186-189	제시문(바)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씨마스	2018	137-139	제시문(사)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8	141-142	제시문(사)	○

5. 문항 해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창비, 2017)에 실린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대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 인용한 글이다. 죽음이라는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전개되는 가족간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이 마지막 장면은, 일상의 경험과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해온 부부의 이별의 슬픔, 안타까움,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 진정한 사랑 감정 등이 미묘하게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잘 보여준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미래엔, 2018)에 실린 안창호의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특히 안창호 선생님은 '무정한 사회'와 '다정한 사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비교 설명하면서, 대한 사회가 개조(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 사이의 정이 돈독히 쌓여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인간 관계'가 형성돼야 함을 주창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 2017)에 실린 「소통과 담론의 윤리」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하버마스가 제시한 의사소통적 이성에 의한 합의를 통해 이를 수 있는 담론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의사소통 과정에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성적 대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갈등을 넘어 상호이해와 화해의 사회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반추해 보게 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씨마스, 2018)의 「도덕적인 삶과 감정」과 고등학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학사, 2018)의 「도덕 감정과 도덕적 삶」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 의하면, 보편적 윤리기준 확립을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감정을 넘어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감정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사회발전에 있어서 보편적 윤리기준으로서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항 2</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의 '무정한 사회' 내용을 파악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제시문 (라)의 논지 파악 및 이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무정한 사회''가 '다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도출했는지 평가한다.(15점)
① 제시문 (마)의 무정한 사회의 특징 파악: 다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 파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무정한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무정한 사회로 전락한 이유인 사회적 합의의 기반인 인간관계가 정의 없이 관습, 유교적 허례, 권위 등에 의해 맺어져서 갈등이 만연할 수 있기 때문.(5점)
② 제시문 (라)의 논지 및 이를 제시문 (마)에 적용: 제시문 (라)에 나타난 부부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 아래에
</td><td>40</td></tr>
</table>

서 오랜 세월 지내오면서 쌓여왔던 부부 간의 정이 부부간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렇게, 개인 간 정이 돈독하게 쌓이는 모습이 다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조건이라는 점을 유추하여야 함.(15점)

2) (바)와 (사)의 내용을 통합하여 (마)에 나타난 '다정한 사회'가 이룩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사회개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지를 평가한다.(25점)

① 제시문 (바)에 나타난 의사소통적 이성을 다정한 사회가 이루어진 후,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5점)

② 합리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공감으로 확대되기 위한 조건을 (사)에서 찾아야 함. 여기서 이성의 역할(방향 제시)과 감정의 역할(실천기준 제시)의 구분 및, 개인적 감정이 아닌 사회적 감정으로서 공감의 역할(도덕적 행위를 가능케 함)에 대한 서술.(10점)

③ (바)와 (사)의 통합으로서 의사소통적 이성과 사회적 감정이 통합된 윤리적 공감대 형성의 조건임을, 그리고 이를 통한 더 나은 사회로 발전 가능성 논의.(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의 무정한 사회 제시 및 (라)의 논지를 근거로 (마)의 다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을 도출했는지 평가(15점)	(마)의 무정한 사회만 정확히 제시했을 경우	3~5점
		(마)의 무정한 사회 내용 제시 및 (라)의 논지는 정확히 제시하는 경우	6~10점
		(마)의 무정한 사회 내용 제시 및 (라)의 논지는 정확히 제시, 그리고 이를 근거로 무정한 사회가 다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정확히 도출하였을 경우	11~15점
	② (바)와 (사)의 내용을 통합하여 (마)에 나타난 '다정한 사회' 이후,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조건 제시(25점)	(바)에 나타난 의사소통적 이성만을 첫째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3~5점
		위에 더하여, 합리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공감으로 확대되기 위한 조건을 (사)에서 찾아서 정확히 제시한 경우	6~19점
		위 두 내용을 정확히 서술하고, (바)와 (사)의 통합으로서 '의사소통적 이성과 사회적	20~25점

		감정이 통합된 윤리적 공감대 형성’을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7. 예시 답안

(마)에 따르면 대한사회가 무정한 사회로 전락한 이유는, 사회적 합의의 기반인 인간관계가 정의 없이 관습, 유교적 허례, 권위 등에 의해 맺어져서 갈등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여 다정한 사회로 가려면, (라)의 부부 사례처럼 상호배려를 기반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진솔한 인간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이렇게 개인 간 정의가 쌓여 다정한 사회가 된 후,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바)에 따르자면,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합의에 이르는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의사소통에 인간의 감정에 대한 고려가 보완되어야 하는데, (사)에 따르면 이때의 감정은 주관적 감정을 넘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감정이다. 이성은 도덕적 방향만을 제시할 뿐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감 능력 역시 사회발전을 위한 또 다른 조건이다. 요약하면 다정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적 이성과 사회적 감정이 통합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570자)

문항카드 6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II / 문제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적인 감정, 공감, 죄형 법정주의, 정보화
예상 소요 시간	24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3] 제시문 (자)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제시문 (아)의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가 갖는 한계를 서술하고, 제시문 (아)의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조건을 제시문 (사)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제시문]

(사) 과거 서양의 사상가들은 전통적으로 도덕의 문제를 정념과 이성 간의 싸움으로 설정하였고, 이 싸움에서 이성이 승리하는 것이 곧 선이요 덕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성에 의한 정념의 지배'는 오랫동안 서양 윤리학의 공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흄에 따르면 이성은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성의 능력인 지성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이성은 바람직한 행위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감정만이 의지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게 만든다. 따라서 도덕적 활동은 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시인(是認)의 감정이나 부인(否認)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은 개인들 각자의 주관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인 감정들이다. 흄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은 인류 전체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을 갖도록 만든다. 흄은 이를 다음처럼 설명한다. "그(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자)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떠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 그는 인간 본성 안의 보편적 원리를 움직여, 모든 인간이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소리를 내야 한다."

(아)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이처럼 죄형 법정주의는 강력한 권력 수단인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이 된다. 한편,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만 있으면 그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가 확립되었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하고 적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이와 같은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의미한다.

(자) 정보화로 시공간적 제약이 극복되고 실시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생활 양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누리 소통망(SNS)이 확산되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원격 진료,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전자 행정 서비스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욱 편리해졌다. 한편 개인 및 국가 간 정보 격차가 소득 및 국가의 빈부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보의 소유와 활용 능력에 따른 사회 불평등 구조가 형성되고 사이버 범죄,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 지적 재산권 침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3. 출제 의도

- 문제 3의 출제 의도는 특정한 이론이나 주장을 활용하고 적용하여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능력과 이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대안 제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음.
- 정보화 사회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적용하여 그 한계를 찾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인 측면을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도덕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윤리와 사상</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td><td>제시문 (사), 문제 3</td></tr>
</table>
2. 사회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정치와 법</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정법05-01]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탐구한다.</td><td>제시문 (아)</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통합사회</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통사03-02]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의 확대 및 격차, 생태 환경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다루며,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td><td>제시문 (자)</td></tr>
</table></td></tr>
</table>

	죄, 정보 격차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다룬다.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 방안을 평가하도록 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박찬구	씨마스	2020	138	제시문(사)	○
윤리와 사상	황인표	교학사	2020	141-142	제시문(사)	○
정치와 법	서범석	지학사	2019	148	제시문(아)	X
통합사회	육근록	동아출판	2020	85	제시문(자)	○

5. 문항 해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씨마스, 2018)의 「도덕적인 삶과 감정」과 고등학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학사, 2018)의 「도덕 감정과 도덕적 삶」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 의하면, 보편적 윤리기준 확립을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감정을 넘어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감정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사회발전에 있어 보편적 윤리기준으로서 타인과의 공감 능력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지학사, 2019)에 실린 「형법과 죄형법정주의」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죄형 법정주의의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와 법률 내용에 대해 정의의 합치와 적정성을 강조하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의 차이를 설명한 글로, 현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적용해 보도록 유도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동아출판, 2020)에 실린 「정보화로 나타난 변화와 문제점은?」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의 편리성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정보화로 인한 시공간적 제약이 극복되어 변화된 생활 양식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 수 있는 부작용, 즉 개인 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의 증가 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게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항 3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20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자)의 정보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적 상황을 활용하여 제시문 (아)의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가 갖는 한계를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 (10점)

①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아)의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로 미리 규정한 내용만 범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② 기존의 법률로 과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한 경우.(5점)
[예시]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적용하면 기존의 법률로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2) 제시문 (아)의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문 (사)를 토대로 서술하는지를 평가한다.(10점)

① 입법자 및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전체 구성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감정을 형성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법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감정의 형성은 구성원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감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10점)

② 입법자 및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전체 구성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감정을 형성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점만을 작성한 경우(4점)

③ 법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감정의 형성은 구성원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감을 필요로 한다는 점만을 작성한 경우(3점)

④ 공감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만을 작성한 경우(3점)
[예시]

입법자 및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전체 구성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감정을 형성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법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감정의 형성은 구성원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감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음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음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자)의 정보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적 상황을 활용하여 제시문 (아)의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가 갖는 한계를 서술 (10점)	새로운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를 설명	2-5점
		기존의 법률로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는 한계를 설명	2-5점
	② 제시문 (아)의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문 (사)를 토대로 서술하는지를 평가 (10점)	전체 구성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감정을 형성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작성	2-4점
		법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감정의 형성은 구성원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감을 필요로 한다는 점만을 작성한 경우	1-3점
		공감은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만을 작성한 경우	1-3점

7. 예시 답안

(자)에 따르면 정보화로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일상생활이 편리해졌으나, 사이버 범죄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의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로 미리 규정한 내용만 범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기존 법률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입법자 및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전체 구성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감정을 형성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법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감정의 형성은 구성원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감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417자)

문항카드 7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경영경제계열 Ⅰ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사회·문화,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돌봄, 그리움, 연민, 관심, 문제 해결, 깨달음, 자생력, 관계, 정서, 안정, 통합, 친밀감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돌봄의 '동기와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 그날따라 어머니는 내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발등을 타고 넘어갔다. 눈을 떠 보니 아주 귀여운 다람쥐다. 숱하게 보아 온 동물이지만 그날은 특별하게 보였다. 겨울잠에서 깬 후 충분히 먹지 못했는지 여위어 보였다.

"옛다. 이거 먹으렴."

막내를 서울로 떠나보낸 지도 10년이 넘는다. 자식들은 철들기도 전에 모두 서울로 떠났다. 어머니는 갑자기 눈시울을 문질렀다. 외로움 때문이다. 그리움 때문이다. 다람쥐가 어머니의 가슴속에 있는 그리움을 불러낸 셈이다.

"자아, 많이 먹어라. 아침이 든든해야 해. 요즘 젊은 것들은 아침을 빵에다 우유로 때운다고 하더라만, 사람은 아침이 든든해야 써. 내일도 오너라. 알았지?"

어머니는 꼭 자식을 보는 심정이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는 데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자식들이 커 버리자 이상하게도 허탈했다. 모두 손에 잡히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 버린 듯했다.

그날부터 다람쥐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항상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 준다. 전에는 밤늦게 일에 지쳐서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 잤다. 밥상 차릴 기운도 없었다. 그런데 다람쥐가 반기면서부터 달라졌다. 어머니는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밥을 먹는다. 막내의 밥그릇을 차지한 다람쥐는 이제 하찮은 동물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는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고 보니 외로움도 별게 아니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없어지니 말이다.

어머니는 다람쥐 어미를 정성스럽게 보살폈다. 보고 들은 경험으로 다람쥐의 먹이를 구하고, 밥도 주었다. 묵은 밤도 구해다 주었다. 사실 지난봄부터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았다. 애써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가 다 구해다 주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다람쥐의 식성을 잘 알았다.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수컷 다람쥐는 서너 번 보이더니 사라졌다. 다른 동물들에게 당한 모양이다. 그래서 암컷 다람쥐는 더욱 먹이를 어머니에게 의존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암컷 다람쥐가 얼마만큼 게을러져 있는지 몰랐다. 다람쥐는 먹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 S# 4. 언덕길(밤) — 눈

만석: 이런 날은 쉬지·····. 뭣 하러 나왔어? 이깟 파지 주워서 몇 푼이나 번다고·····!

송 씨: (심드렁 본다.)
만석: 아무도 없는 게야? 밥 멕여 줄 식구나 자식이 없어?
송 씨: ·····! (서글퍼지는·····. 못 들은 척 외면하며 무릎을 짚고 일어난다.) 그럴 처지나 되나요.
송 씨 옆에 멈추는 만석의 오토바이, 불쑥 우유 하나를 내민다.
만석: (덤덤) 들어! 우유가 뼈에 좋대!
송 씨: 안 그러셔도 돼요.
송 씨, 싫지 않은 표정이다.
S# 45. 송 씨 집 계단(낮) 송 씨 집 계단에 앉아 있는 만석과 송 씨.
송 씨: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거라며·····. 징용 가신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리다 결국 이름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송 씨니까·····. '송 씨야 송 씨야' 하고 불렀다고요!
만석: (끄덕끄덕)
S# 58. 동 주민 센터(낮) 송 씨를 끌고 동 주민 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만석.
연아: (벌떡 일어서며) 할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만석: 접때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돈 나온다 그랬지?
연아: 독거노인 보상 급여요?
만석: 얼마나 나와?
연아: 한 10만원 정도 나올걸요.
송 씨: 한 달 꼬박 모아도 힘든 돈인데····· 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아: 할머니, 일단 주민 등록증 주세요.
송 씨: ·····. (머뭇머뭇) 그게 없는데·····.
연아: 그럼 일단 등록 신청부터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송 씨: 송 씨요.
연아: 그다음은요?
송 씨: 그냥·····. 송·····. 그게·····. (머뭇)
만석: 이뿐이야.
연아: (이름을 적는데·····.)
만석: 아니 이쁘다 할 때 이쁜 말고·····. 송이, 뿐이다 할 때, "이뿐", 그래·····. 빨리 써·····!
연아, 얼떨결에 빈칸을 채우고·····. 만석, 송 씨를 보며 눈을 찡긋찡긋·····.
S# 61. 송 씨 방(낮) 송 씨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온 연아.
연아: 짜잔! 송이뿐 할머니 주민 등록증 나왔어요.
송 씨: 아이구 아이구·····. (받아 본다.) 이게 내 이름이라구? 송·····. 이·····뿐!
연아: 주소지는 여기로 했구요·····. 복지과에서 심사가 끝나는 대로 지원금은 나올 거예요.
송 씨: 이거 고마워서 어떡해요.
부엌으로 나가는 송 씨, 뭔가를 덜거덕거리며 만들고·····.
연아: 할머니! 할아버지 안 무서우세요?
송 씨: 입이 걸어 그렇지, 속은 순한 데가 많은 분이잖수.
연아: 네·····. 혹시 할아버지랑 사귀세요?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바닥으로 쨍그랑·····.

연아: 괜찮으세요?

송 씨: 손이 미끄러워서·····.

연아: '송이뿌운' 이름을 말씀하실 때 꼭 '송이뿐이다' 하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다) 사회 속의 모든 개인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동하지만, 살아가다가 빈곤, 질병, 장애, 실업과 같이 다양한 어려움이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나 위험은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빈곤과 같은 어려움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빈민 구제도 민간의 자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빈부 격차, 실업 등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취약 집단의 어려운 삶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졌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 복지의 중요성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의 역할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질병, 사고, 산업 재해, 노령 등의 위험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어린이 등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보장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또 소득을 재분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여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라) 그 무렵 집에 드나들던 파출부가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왜 사모님 같은 분을 효부 표창에서 빠뜨리느냐 말예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다 효자 효녀 효부라고 신문에 나고 상금도 타던데."

그 여자가 순진하게 분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의 완벽한 위선에 절망했다. 나는 벌써부터 내 속에서 증오와 절망적인 쾌감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몸져누웠다. 몸살에 신경 안정제의 후유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까지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안 꼴이 엉망이 되었다. 정신과 의사도 그런 귀띔을 했지만, 시어머님을 한동안 어디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그분의 친정 조카들로부터였다. 그런 분을 잠시라도 맡아 줄 만한 아들이나 딸이 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입원을 일단 생각해 보았던 것 같다. 〔중략〕

처음으로 남편한테서 그런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셈이었다.

"시설은 어때요? 살 만해요? 주위 환경은요?"

"그렇게 궁금하면 같이 가 볼래?"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동부인해서 기차를 탔고, 완행열차나 서는 작은 역에서 내린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포장 안 된 시골길을 한 시간이나 달렸다. 기도원 대신 무슨 암자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거기서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고 했다. 좀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 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어 오는 걸 느꼈다.

내가 첫애를 뱄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 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 바가지를 구해 오게 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의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 놓았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를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아직 살아 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있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릿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삼 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단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 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어떤 대상을 특정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분석적 사고력과 2) 서로 보완적인 관점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상황에 직면한 자의 행위가 위에서 설명한 대상의 행위와 어떻게 다른지를 유추하는 통합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감성 로봇의 돌봄을 기능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인간의 고유성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관점을 연계하여 중심 논지를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돌봄 행위의 동기, 방식, 결과 측면에서 로봇의 돌봄 기능과 인간의 돌봄 행위의 차이점을 추론해 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부 고시 제 2015 - 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 2018 - 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성취기준 / 영역별 내용</td><td>1.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10국02-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59페이지)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66페이지)</td><td>제시문 (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문학</th><th>관련</th></tr>
<tr><td>성취 기준 1</td><td>[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124페이지)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126페이지)</td><td>제시문 (나), (라)</td></tr>
</table>
2. 사회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사회·문화</th><th>관련</th></tr>
<tr><td>성 취 기준 1</td><td>[사회 계층과 불평등]
[12사문04-04] 사회 복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복지 제도의 유형과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한다.</td><td>제시문 (다)</td></tr>
</table></td></tr>
</table>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신유식 외	미래엔	2017	339-352	제시문 (가)	○(중략)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18	286-292	제시문 (나)	○(중략)
사회 · 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7	155-161	제시문 (다)	○(중략)
문학	김창원 외	동아출판	2018	281-286	제시문 (라)	○(중략)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네 개의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사례에서 돌봄의 동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찾아 비교하여 완결성(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글로 작성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미래엔, 2017)에 실린 이상권의 소설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자식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지내던 어머니가 우연히 찾아온 다람쥐에게 먹이를 내어 주며 자식을 돌보듯 먹이를 챙겨 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으나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좋은책 신사고, 2018)에 실린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만석 할아버지가 송 씨 노인에 대한 연

민과 관심으로 사회적 약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송 씨를 돕기 위한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만석 할아버지에 대한 송 씨 할머니의 마음이 연아와의 대화 장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사회 · 문화』(천재교육, 2017)에 실린 「사회 복지의 의미와 유형」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부 격차, 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복지의 개념과 제도가 등장하였고, 복지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동아출판, 2018)에 실린 박완서의 「해산 바가지」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 며느리인 '나'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여생을 맡길 기관을 찾아 가던 중 자신의 해산에 얽힌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정신을 떠올리고 그분의 여생을 자신이 직접 돌보아 드리는 과정에서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항 1</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돌봄의 '동기와 결과'를 정확하게찾아내고있는지평가한다.(32점)

①**동기**: 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람쥐를 자식과 동일시함. (4점)
결과: 어머니는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으나 다람쥐는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먹이를 스스로 구하는 능력을 상실하게됨. (4점)
②**동기**: 가난하고 소외된 송씨에 대한 연민과 관심. (4점)
결과: 송 씨는 (이름을 갖게 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기쁨과만석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됨. (4점)
③**동기**: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의 필요성.(4점)
결과: 사회 구성원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사회 전체가 안정되고 통합됨. (4점)
④**동기**: ('나'에게 생명 존중의 정신과 엄마 됐음의 기쁨을 알게 해 주셨던) 시어머니의 여생 역시 존중 받아 마땅하다는 깨달음. (4점)
결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시어머님을 돌봄으로써) '나'는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돌봄의 '동기와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 /

</td><td>40</td></tr>
</table>

본론 / 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지 평가(**3점**),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음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음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반복의 특징과 결과를 각각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7. 예시 답안

(가)~(라)에는 돌봄의 다양한 동기와 결과가 나타난다. (가)에서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람쥐를 자식과 동일시하며 돌본다. 그 결과 어머니는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으나 다람쥐는 먹이를 스스로 구하는 능력을 점점 잃게 된다. (나)에서 만석은 가난하고 소외된 송 씨에 대한 연민과 관심으로 송 씨 삶의 짐을 덜어 주기 위한 호의를 베푼다. 그 결과 송 씨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기쁨을 느끼고 만석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된다. (다)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서 등장했다. 그 결과 개인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사회 전체가 안정되고 통합될 수 있다. (라)에서 '나'는 시어머니도 한 생명으로서 존중 받아 마땅하다는 깨달음으로 가식 없이 시어머니를 돌본다. 그 결과 '나'는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이처럼 돌봄의 동기는 그리움, 연민과 관심,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 깨달음 등으로 다양하고, 돌봄은 활력 회복과 자생력 상실, 관계 발전, 사회 안정과 통합, 정서 안정과 친밀감 등을 가져온다. (570자)

문항카드 8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경영경제계열 I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독서, 국어,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돌봄, 기능, 감성 로봇, 인간 고유성, 감정, 성찰, 윤리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제시문 (마)에 언급된 로봇의 돌봄을 기능적 차원에서 서술하고,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돌봄 행위자로서 (라)의 '나'가 (마)의 로봇과 어떻게 다른지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 그 무렵 집에 드나들던 파출부가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왜 사모님 같은 분을 효부 표창에서 빠뜨리느냐 말예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다 효자 효녀 효부라고 신문에 나고 상금도 타던데."

그 여자가 순진하게 분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의 완벽한 위선에 절망했다. 나는 벌써부터 내 속에서 증오와 절망적인 쾌감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몸져누웠다. 몸살에 신경 안정제의 후유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까지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안 꼴이 엉망이 되었다. 정신과 의사도 그런 귀띔을 했지만, 시어머님을 한동안 어디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그분의 친정 조카들로부터였다. 그런 분을 잠시라도 맡아 줄 만한 아들이나 딸이 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입원을 일단 생각해 보았던 것 같다. 〔중략〕

처음으로 남편한테서 그런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셈이었다.

"시설은 어때요? 살 만해요? 주위 환경은요?"

"그렇게 궁금하면 같이 가 볼래?"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동부인해서 기차를 탔고, 완행열차나 서는 작은 역에서 내린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포장 안 된 시골길을 한 시간이나 달렸다. 기도원 대신 무슨 암자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거기서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고 했다. 좀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 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어 오는 걸 느꼈다.

내가 첫애를 뱄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 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 바가지를 구해 오게 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의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

셔 놓았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를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아직 살아 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있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릿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삼 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단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 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마) 감성 로봇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일을 중시하고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비혼족의 증가, 여러 사정에 따른 가족 해체 등 현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결책으로 주목받으면서 그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감정 인식 로봇 '페퍼'는 인간처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표정 변화를 관찰하여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파악하고, 목소리의 높낮이와 떨림 등으로 상대방의 근심을 감지한다. 페퍼의 정서적 기능은 이미 유아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인을 위한 간호용 로봇도 등장했다.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 '미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벗이자 간병인 역할을 맡는다. 노인 곁을 따라다니며 약 먹을 시간을 알려 주고, 누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준다.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기 위한 가벼운 대화도 나눌 줄 안다. 카메라로 노인의 움직임을 매일 확인하며,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가족이나 병원에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바)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과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것이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 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 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 왔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사) **알송이**: 선생님,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분명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동물과 다른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선생님: 네, 인간은 어느 한 요소만 지니고 있는 존재라기보다 다양한 특성이 상호 연결되어 나타나는 복합적 존재라 할 수 있어요. 또한 인간은 이미 주어진 목적에 맞춰 기계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주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더불어 인간은 능동적이고 주체적 존재인 동시에 각자의 해석과 판단이 갖는 임의성과 한계를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존재예요. 즉, 자신의 신념과 판단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다시 묻고 확인할 수 있지요. 인간은 이러한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신념을 형성해 보편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으며, 선한 행위를 선택하고 이를 추구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윤리적 존재'라고 하는 이유예요. 이러한 윤리적 특성은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고요.

알송이: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윤리적 존재고요?

선생님: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끊임없이 성찰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답니다.

알송이: 네! 알겠습니다.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어떤 대상을 특정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분석적 사고력과 2) 서로 보완적인 관점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상황에 직면한 자의 행위가 위에서 설명한 대상의 행위와 어떻게 다른지를 유추하는 통합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감성 로봇의 돌봄을 기능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인간의 고유성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관점을 연계하여 중심 논지를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돌봄 행위의 동기, 방식, 결과 측면에서 로봇의 돌봄 기능과 인간의 돌봄 행위의 차이점을 추론해 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tr><td></td><td>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호] “도덕과 교육과정”</td></tr>
<tr><td>성취기준 / 영역별 내용</td><td>
1.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문학</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12문학04-01]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130쪽)</td><td>제시문 (라)</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독서</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독서02-01]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여 읽는다.
[12독서02-02]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여 읽는다. (95쪽)</td><td>제시문 (마)</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59쪽)</td><td>제시문 (바)</td></tr>
<tr><td>성취기준 2</td><td>[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61쪽)</td><td>문제2</td></tr>
</table>
2. 도덕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윤리와 사상</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윤사01-01]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td><td>제시문 (사)</td></tr>
</table>
</td></tr>
</table>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김창원 외	동아출판	2018	281-286	제시문(라)	0 (중략)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8	196-197	제시문(마)	0 (중략)
국어	신유식 외	미래엔	2017	307-310	제시문(바)	0 (중략)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8	11-13	제시문(사)	0 (중략)

5. 문항 해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동아출판, 2018)에 실린 박완서의 「해산 바가지」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 며느리인 ‘나’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여생을 맡길 기관을 찾아 가던 중 자신의 해산에 얽힌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정신을

떠올리고 그분의 여생을 자신이 직접 돌보아 드리는 과정에서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동아출판, 2018) 교과서에 실린 「’감성 로봇’, 신(新)종족의 출현」의 일부이다. 감성 로봇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문의 일부인 이 글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는 해결책으로 감성 로봇의 수요를 전망하고 감성 인식 로봇과 간호용 로봇의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감성 로봇의 특징을 설명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국어』(미래엔, 2017) 교과서에 실린 구본권의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성찰해야 함을 강조한다. 결핍과 고통을 느끼는 감정적 존재로서 인간의 특징을 서술하고 이러한 약점이 오히려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만드는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임을 주장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학사, 2018) 교과서에 실린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 윤리적 존재로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며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윤리적 존재임을 설명한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항 2</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마)의 로봇이 제공하는 돌봄의 방식을 기능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10점)

① 대상의 얼굴 표정, 목소리, 움직임을 관찰한다는 것을 파악한 경우.(3점)
② 관찰한 바를 토대로 감정과 건강 상태를 판단한다는 것을 파악한 경우.(3점)
③ 정해진 대응 방식대로 정서적 위안과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것을 파악한 경우.(4점)

2) 제시문 (바)와 (사)를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10점)
① 제시문 (바)의 논지: 인간은 삶에서 느끼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td><td>40</td></tr>
</table>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음.(5점)
② 제시문 (사)의 논지: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음.(5점)

3) 두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돌봄 행위자로서 (라)의 '나' 가 (마)의 로봇과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했는지 평가한다.(20점)
① (라)의 '나' 는 과거 경험을 그 기억에서 비롯되는 기쁨과 반성을 토대로 스스로 윤리적 선택을 하여 돌봄 행위를 한다는 것을 파악한 경우.(5점)
② (라)의 '나' 는 힘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며 윤리적인 돌봄 행위를 한다는 것을 파악한 경우.(5점)
③ (라)의 '나' 는 돌보는 대상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돌봄 행위를 돌아보면서 만족감 등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파악한 경우.(5점)
④ 이러한 점을 (마)의 로봇과 대비하여 서술한 경우.(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음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음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라)의 로봇의 돌봄을 기능적 차원에서 서술했는지 평가(10점)	간병인이나 벗의 역할로만 서술한 경우	2~3점
		관찰, 판단, 서비스 제공을 나눠서 서술한 경우	4~7점
		관찰한 바를 토대로, 판단에 따라 정해진 대응 방식으로,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8~10점
	② (바)와 (사)의 논지를 파악했는지 평가(10점)	(바) 또는 (사) 논지 중 하나만 파악한 경우	2~5점
		(바)와 (사) 논지를 각각 모두 파악한 경우	6~10점
	③ 돌봄 행위자로서 (라)의 '나' 의 고유성을 (바)와 (사)를 통합하여 서술했는지 평가(20점)	(라)의 '나' 의 고유성을 하나만 서술한 경우	2~3점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나' 의 고유성을 하나만 서술한 경우	4~7 점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나' 의 고유성을 두 가지로 서술한 경우	8~12 점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나' 의 고유성을 세 가지로 서술한 경우	13~16점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나' 의 고유성을 세 가지로 서술한 경우	17~20점

7. 예시 답안

(마)의 로봇은 대상의 얼굴 표정, 목소리와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감정과 건강 상태를 판단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서적 위안과 일상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바)와 (사)에 따르면, 인간은 삶에서 느끼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나'를 설명하면, 관찰에 근거해 반응적 판단을 하는 (마)의 로봇과 달리, (라)의 '나'는 시어머니와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다시 느끼게 된 기쁨의 감정과 반성적 의지로 시어머니를 존중하며 돌보겠다는 윤리적 선택을 스스로 한다. 또한 (마)의 로봇은 정해진 방식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라)의 '나'는 돌봄 행위에서 비롯되는 힘듦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정성껏 돌보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낸다. 돌보는 상대와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돌봄 행위를 성찰하면서 만족감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나'는 로봇과 다르다. (570자)

문항카드 9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 번호	경영경제계열 I(수학) / 문제 3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확률과 통계
	핵심 개념 및 용어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이산 확률변수의 기댓값
예상 소요 시간	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가) 중앙마트는 매주 총 수익의 10%를 이웃 돕기 후원금으로 기부한다.

(나) 주중(월~금)에 방문한 고객에 대한 기대 수익은 고객 1인당 5만 원이고, 주말(토, 일)에 방문한 고객에 대한 기대 수익은 고객 1인당 10만 원이다.

(다) 중앙마트에 오는 모든 고객은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후에 방문한다.

(라) 이번 주 중앙마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총 대수는 아래와 같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차 차량 대수	20	10	20	30	20	70	50

(마)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는 고객의 수는 요일과 관계없이 아래 확률분포를 따른다.

사람의 수 (명)	1	2	3	4	5
확률	0.1	0.3	0.2	0.3	0.1

[문제 3] 다음 주 중앙마트가 기부할 이웃 돕기 후원금의 기댓값(단위: 만 원)을 구하시오. 단, 다음 주 중앙마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의 총 대수 정보는 이번 주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3. 출제 의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사건과 이와 관련된 확률 및 기댓값의 개념은 논리적 사고 및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본 문제는 기업의 수입 추론을 위해 위성사진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댓 수를 파악하여 예측하는 사례를 단순화한 간단한 확률 예제 문제이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변수와 기댓값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성취기준	[12확통02-02]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확률과 통계	권오남 외	교학사	2019	89-95
	확률과 통계	배종숙 외	금성출판사	2019	93-98
	확률과 통계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9	81-86

5. 문항 해설

문제 푸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는 사람 수의 기댓값을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두 번째로 중앙마트의 주간, 주말 기대수익을 확률변수의 함수 형태로 정의하고 그의 기댓값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에서 정의된 비율을 이용하여 후원금을 계산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번 문항	●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는 사람 수의 기댓값 $E(X)$를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주중과 주말별로 인당 기대 수익을 올바르게 명시한 경우: +4점 ● 중앙마트의 한 주간 기대 수익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8점 ● 후원금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3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3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20

7. 예시 답안

●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는 사람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X의 기댓값($E(X)$)은 $E(X) = (1\times0.1)+(2\times0.3)+(3\times0.2)+(4\times0.3)+(5\times0.1)=3$이다.

● 차량 한 대당 수익은 주중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중 1인당 기대 수익인 5를 곱하여

$5X$, 주말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말 1인당 기대 수익인 10을 곱하여 $10X$로 생각할 수 있다.

- 주중에 주차한 차량의 총 수는 100대, 주말에 주차한 차량의 총 수는 120대이므로, 주중과 주말별로 기대 수익을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 주중: 주중(월,화,수,목,금)의 기대 수익은 차량 100대에 주중의 차량 한 대당 수익을 곱한 확률변수의 기댓값이며, $E(100\times 5X) = 500\,E(X) = 1500$만 원이 된다.
  - 주말: 주말(토,일)의 기대 수익은 차량 120대에 주말의 차량 한 대당 수익을 곱한 확률변수의 기댓값이며, $E(120\times 10X) = 1200\,E(X) = 36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중앙마트의 주간 기대 수익은 주중과 주말 기대 수익의 합인 5100만 원이다.

위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요일별로 기댓값을 구하고 이를 합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 월요일: $E(20\times 5X) = 100\,E(X) = 300$
- 화요일: $E(10\times 5X) = 50\,E(X) = 150$
- 수요일: $E(20\times 5X) = 100\,E(X) = 300$
- 목요일: $E(30\times 5X) = 150\,E(X) = 450$
- 금요일: $E(20\times 5X) = 100\,E(X) = 300$
- 토요일: $E(70\times 10X) = 700\,E(X) = 2100$
- 일요일: $E(50\times 10X) = 500\,E(X) = 1500$

따라서 중앙마트의 주간 기대 수익은 요일별 기대 수익의 합인 5100만 원이다.

- 후원금은 중앙마트의 주간 기대 수익의 10%인 510만 원이 된다.

문항카드 10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 번호	경영경제계열 II(수학) / 문제 3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확률과 통계
	핵심 개념 및 용어	경우의 수, 확률의 곱셈정리, 이산 확률변수의 기댓값
예상 소요 시간	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가) 동굴에 갇혀 있는 관광객을 구조하기 위해 한 명의 구조원이 파견되었다.

(나) 구조원이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아래와 같은 코스 A, B, C, D의 갈림길이 나타났다.

- 구조원이 코스 A, B, C를 선택하는 경우, 관광객을 만나지 못하고 각각 4시간, 3시간,
  2시간 후 출발 장소(갈림길)로 돌아온다.
- 구조원이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 1시간 후 관광객이 갇혀 있는 장소에 도착한다.

(다) 구조원이 출발 장소(갈림길)에서 각 코스를 선택할 확률은 동일하다.

(라) 코스를 잘못 선택하여 출발 장소(갈림길)로 돌아온 경우, 선택했던 코스는 다시 선택하지 않는다.

[문제 3] 구조원이 출발 장소(갈림길)로부터 관광객이 갇혀 있는 장소까지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3. 출제 의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사건과 이와 관련된 확률 및 기댓값의 개념은 논리적 사고 및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본 문제는 조난당한 관광객을 구출하러 가는 구조원의 경로 선택 문제를 확률과 관련시키고 경로 선택에 따르는 소요시간 문제를 기댓값 계산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변수와 그 확률분포 및 기댓값에 대한 개념의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성취기준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12확통02-01]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의미를 이해한다. [12확통02-02]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 [12확통02-07] 확률의 곱셈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권오남 외	교학사	2018	255-262
	수학	배종숙 외	금성출판사	2018	263-267
	수학	고성은 외	좋은책 신사고	2018	249-252
	확률과 통계	권오남 외	교학사	2019	44-95
	확률과 통계	배종숙 외	금성출판사	2019	49-98
	확률과 통계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9	43-86

5. 문항 해설

문제 푸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관광객을 구조하기 위해 코스들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을 경우의 수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잘 나열 한다. 두 번째로 구조원이 관광객이 갇혀있는 장소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각 경우에 대한 확률들을 확률의 기본성질, 곱셈정리 등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이를 이용해 확률분포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을 이용해 구조원이 관광객이 갇혀있는 장소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기댓값을 계산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3	● 갇혀 있는 장소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률변수로 올바르게 정의한 경우 : +5점 ● 확률변수의 확률들을 올바르게 유도한 경우 : +8점 ※ 8개의 확률값들 중 하나가 틀릴 때 마다 -1점 ●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 +7점	20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2~3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7. 예시 답안

- 관광객이 갇혀 있는 장소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확률분포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된다.

소요되는 시간(X)	확률	방문 코스들
1	$\frac{1}{4}$	D
3	$\frac{1}{4}\times\frac{1}{3}=\frac{1}{12}$	CD
4	$\frac{1}{4}\times\frac{1}{3}=\frac{1}{12}$	BD
5	$\frac{1}{4}\times\frac{1}{3}=\frac{1}{12}$	AD
6	$2!\times\frac{1}{4}\times\frac{1}{3}\times\frac{1}{2}=\frac{1}{12}$	BCD (BC 순서교환가능)
7	$2!\times\frac{1}{4}\times\frac{1}{3}\times\frac{1}{2}=\frac{1}{12}$	ACD (AC 순서교환가능)
8	$2!\times\frac{1}{4}\times\frac{1}{3}\times\frac{1}{2}=\frac{1}{12}$	ABD (AB 순서교환가능)
10	$3!\times\frac{1}{4}\times\frac{1}{3}\times\frac{1}{2}\times1=\frac{1}{4}$	ABCD (ABC 순서교환가능)

- 확률계산 설명은 아래와 같다.
  - $X=1$인 경우는 한 번에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확률은 $\frac{1}{4}$이다.
  - $X=3$인 경우는 코스 C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2+1=3이 소요되고 확률은 $\frac{1}{4}\times\frac{1}{3}=\frac{1}{12}$이다.
  - $X=4$인 경우는 코스 B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3+1=4가 소요되고 확률은 $\frac{1}{4}\times\frac{1}{3}=\frac{1}{12}$이다.
  - $X=5$인 경우는 코스 A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4+1=5가 소요되고 확률은 $\frac{1}{4}\times\frac{1}{3}=\frac{1}{12}$이다.
  - $X=6$인 경우는 코스 B와 C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3+2+1=6이 소요되고 B와 C의 방문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2!)를 곱하여 확률은

$2! \times \frac{1}{4} \times \frac{1}{3} \times \frac{1}{2} = \frac{1}{12}$이다.

- $X=7$인 경우는 코스 A와 C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4+2+1=7이 소요되고 A와 C의 방문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2!)를 곱하여 확률은 $2! \times \frac{1}{4} \times \frac{1}{3} \times \frac{1}{2} = \frac{1}{12}$이다.
- $X=8$인 경우는 코스 A와 B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4+3+1=8이 소요되고 A와 B의 방문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2!)를 곱하여 확률은 $2! \times \frac{1}{4} \times \frac{1}{3} \times \frac{1}{2} = \frac{1}{12}$이다.
- $X=10$인 경우는 코스 A와 B와 C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4+3+2+1=10이 소요되고 A와 B와 C의 방문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3!)를 곱하여 확률은 $3! \times \frac{1}{4} \times \frac{1}{3} \times \frac{1}{2} \times 1 = \frac{1}{4}$이다.

● 해당 표로부터 기댓값을 계산하면,

$$E(X) = \left\{1 \times \frac{1}{4}\right\} + \left\{(3+4+5) \times \frac{1}{12}\right\} + \left\{(6+7+8) \times \frac{1}{12}\right\} + \left\{10 \times \frac{1}{4}\right\} = \frac{66}{12} = \frac{11}{2} = 5.5$$

로 5시간 반이 된다.

문항카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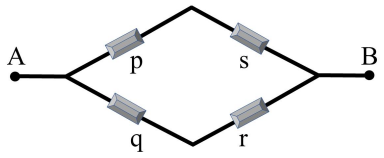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I (수학) / 문제 1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확률과 통계
	핵심개념 및 용어	확률의 덧셈정리, 사건의 독립과 종속
예상 소요 시간	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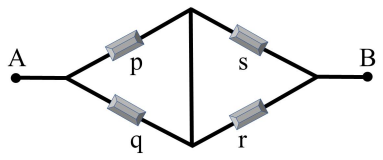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K 회사는 다음 그림의 (가)와 같이 4개의 부품 p, q, r, s가 전선으로 연결된 전기 시스템 설계를 (나)와 같이 전선이 중앙에 추가된 설계로 교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각 부품은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각 부품이 작동 및 오작동할 확률은 각각 $\frac{1}{2}$ 이다. 전류는 A에서 B로 흐르며, 각 부품은 작동할 때만 전류가 흐른다. 시스템 (가)에서 (나)로 설계를 교체할 때 추가되는 비용은 50만 원이며, 시스템에서 전류가 흐를 확률이 1% 증가함에 따르는 수익은 10만 원이라고 한다. K 회사가 시스템 설계를 (가)에서 (나)로 교체할 때, 이익의 증가액(단위: 만 원)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20점]

(가)



(나)



3. 출제 의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이와 관련된 확률의 개념은 논리적 사고 및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본 문제에서의 어떤 회사의 의사결정 상황을 확률과 연관 지었으며,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확률을 확률의 덧셈정리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이 과정 중에서 사건의 독립 및 종속의 개념이 사용된다. 본 문제는 확률의 덧셈정리 및 사건의 독립 및 종속에 대한 개념의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성취기준	1. 확률의 뜻과 활용 [12확통02-03] 확률의 덧셈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조건부확률 [12확통02-06]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확률과 통계	배종숙 외	금성출판사	2019	58-61, 76-79
	확률과 통계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19	53-58, 65-70
	확률과 통계	권오남 외	교학사	2019	53-56, 67-70

5. 문항 해설

시스템 (가) 및 (나)에서 전류가 흐를 확률은 부품 p, q, r, s의 작동 및 오작동 조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를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확률의 덧셈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

$$P(A \cup B) = P(A) + P(B) - P(A \cap B)$$

여기서, A와 B는 각 사건을 표시하며,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P(A \cap B) = P(A)P(B)$$

시스템 (가)에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부품 p와 s가 모두 작동되거나, q와 r가 모두 작동하는 경우이다. 시스템 (나)에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부품 p나 q가 작동되고 부품 r이나 s가 작동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한 확률은 확률의 덧셈정리를 사용하면 계산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채점요소] 확률의 덧셈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가? 관련된 사건을 합집합 또는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또는 모든 경우의 수를 잘 나열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7번 참조 [채점준거] 1. 시스템 (가)에서 전류가 흐를 확률 x를 바르게 계산한 경우: +7점 (예시답안의 그림에서와 같이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x를 고려할 수도 있음) 2. 시스템 (나)에서 전류가 흐를 확률 y를 바르게 계산한 경우: +7점	20

	(예시답안의 그림에서와 같이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y를 고려할 수도 있음) (x와 y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y-x)$ 또는 $(y-x)/x$를 바르게 계산한 경우: +14점) 1. 교체할 때의 수익 $2000/7$만원 또는 125만원을 바르게 계산한 경우: +3점 (결과값은 바르지 않으나 수익 계산 구조를 반영할 경우: +1점) 2.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기대되는 이익의 증가액을 바르게 계산한 경우: +3점 (결과값은 바르지 않으나 비용을 고려하여 이익 증가액의 계산 구조를 반영할 경우: +1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2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7. 예시 답안

시스템의 각 부품이 작동하는 사건을 p, q, r, s로 나타낸다고 하자. 시스템 (가)와 (나)에서 전류가 흐를 확률 x, y는, 각각

$$\begin{aligned} x &= P\{(p\cap s)\cup(q\cap r)\} \\ &= P\{(p\cap s)\} + P\{(q\cap r)\} - P\{p\cap q\cap r\cap s\} \\ &= P\{p\}P\{s\} + P\{q\}P\{r\} - P\{p\}P\{q\}P\{r\}P\{s\} \\ &= \frac{1}{4}+\frac{1}{4}-\frac{1}{16} = \frac{7}{16} \end{aligned}$$

$$\begin{aligned} y &= P\{(p\cup q)\cap(r\cup s)\} \\ &= P\{p\cup q\}\times P\{r\cup s\} \\ &= [P\{p\}+P\{q\}-P\{p\cap q\}] \times [P\{r\}+P\{s\}-P\{r\cap s\}] \\ &= [P\{p\}+P\{q\}-P\{p\}P\{q\}] \times [P\{r\}+P\{s\}-P\{r\}P\{s\}] \\ &= \frac{3}{4}\times\frac{3}{4} = \frac{9}{16} \end{aligned}$$

따라서, 시스템 설계를 (가)에서 (나)로 교체할 때의 이익의 증가액은

$$\left(10\times\frac{y-x}{x}\times 100\%\right) - 50 = \left\{10\times\left(\frac{2}{7}\times 100\%\right)\right\} - 50 = \frac{1650}{7} \approx 235.71\,(\text{만 원}).$$

※ 문제에서의, '1% 증가'를 '1%p 증가'로 해석한 경우, 이익의 증가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도 정답으로 간주한다.

$$\{10\times(y-x)\times 100\%\} - 50 = \left\{10\times\left(\frac{2}{16}\times 100\%\right)\right\} - 50 = 125 - 50 = 75\,(\text{만 원}).$$

※ 참고: 아래와 같이 모든 경우를 나열하여 확률(x, y) 및 확률의 증가값$(y-x)$를 계산할 수 있다.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p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X
q	O	O	O	O	X	X	X	X	O	O	O	O	X	X	X	X
r	O	O	X	X	O	O	X	X	O	O	X	X	O	O	X	X
s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시스템(가)	●	●	●	-	●	-	●	-	●	●	-	-	-	-	-	-
시스템(나)	●	●	●	-	●	●	●	-	●	●	●	-	-	-	-	-
확률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